

# 익산 오정숙 국악인 조사하기

오정숙 국악인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활동하던 국악인 이다. 오정숙은 1967년 스승인 동초 김연수에게 본격적인 판소리를 배워 춘행가, 수궁가 등 5개 판소리 마당을 완성 시켰다. 오정숙 국악인은 202년도 부터 2008년도 까지 익산시 남중동에 거주하며 국악 인재 양성에



헌신 했다.

윤초 오정숙은 1935년 경상도 진주에서 태어나 1960년대 당시 국가 인간문화재였던 동초 김연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여류 명창으로는 처음으로 1972년부터 차례로 동초제 판소리 다섯 마당 전부를 완창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 후로 판소계의 최고 명창으로 활동하며, 국내는 물론 외국까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인 판소리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오정숙은 1991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5호가 된 후 서울 생활을 접고, 2002년 부터 과거 스승을 모시고 처음으로 100일 소리 공부를 하여 명창에 기틀을 세웠다. 그 후 전라북도는 많은 판소리 제자를 양성하여 전라북도 판소리의 텃밭이라는 역사를 만들었으며 오늘 날 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